

〈영적실체〉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12/17(주일) 설교 내용

히브리서 11:30

1. 오늘 말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네가지 방법 가운데, 두번째가 ‘말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치듯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철조망을 쳐야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네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1. 경성하여 깨어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2. 우리 주위에 말씀으로 철조망을 쳐야 합니다.
3. 성령충만 해야 합니다.
4.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중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치듯이,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철조망을 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철조망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또 깊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개인마다 QT, 성경공부, 개인 성경묵상 등 말씀을 접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도록 해주시고, 혹 아직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권면도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해주시길 바랍니다.

2. 오늘 말씀의 네번째 교훈에 의하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해야 한다’ 고 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우리 목장 식구들로 인해 영적인 싸움(어려운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네 번째 교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 다룹니다. 공적인 예배와 더불어 목장예배를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연말을 맞이하여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목장 식구들이 주었던 크고 작은 도움을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목장 식구들로 인해 힘을 얻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경험들을 서로 나누고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에도 더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자는 다짐과 함께, 우리가 단순히 ‘친교의 그룹’이 아닌, 영적인 도움을 주고 받는 ‘믿음의 공동체’ 라고 하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시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늘 말씀의 여러 교훈들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오늘 말씀들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무엇인지 편하게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혹시, 1,2번 질문에서 답변을 많이 하지 않으시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목원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적은 3번 질문에서 답변을 유도해 보실도 좋을 것 같습니다.